

투어 번호
LKSP43VXZ3

클래식 스리랑카 (20일)

20일 · 19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20일 투어는 스리랑카의 고전 노선을 따라 수도 콜롬보에서 남쪽 해안을 거쳐 산악 지역으로 들어가 건조 지역의 야생동물 공원과 문화 중심지를 지나 북동쪽 해안에 이르렀다가 네고롐보로 돌아와 출발합니다. 식민지 항구 도시, 차 재배 지역의 휴양지, 고대 암석 요새와 석굴 사원, 두 개의 국립공원, 그리고 트린코말리 주변 해변에서의 연장 체류를 포함합니다.

여행객들은 한 번의 여행으로 섬의 다양한 풍경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갈레의 요새와 해안선, 우다왈라웨와 갈 오야의 야생동물 사파리, 캔디의 사원과 정원, 누와라 엘리야의 산악 지역 특성, 담불라와 시기리야의 고대 유적지, 그리고 닐라웰리와 피전 아일랜드에서의 여러 날간의 해변 시간을 거쳐 네고롬보의 어항에 도달합니다. 일정은 각 지역에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명소들 사이를 서둘러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투어는 전용 차량과 운전 가이드로 진행되므로 갈레에서의 자전거 우회, 갈 오야 근처의 일출 트레킹, 또는 트린코말리에서의 추가 수상 시간 등 여행객의 관심사에 따라 정차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콜롬보

이번 투어는 수도 콜롬보를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하며, 역사적인 건물들과 쇼핑 거리를 구경합니다.



콜롬보 시내 관광

옛 등대, 옛 국회의사당, 갈레 페이스 호텔, 갈레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 사원, 국립박물관 등 역사적인 명소들을 방문합니다.

Gihanud2001 · CC0



인디펜던스 스퀘어와 레이스 코스

인디펜던스 스퀘어나 레이스 코스의 쇼핑몰과 부티크 상점, 디자이너 매장을 둘러봅니다.

Charaka Ranasinghe · CC BY 2.0

Day 2 콜롬보 → 갈레

한때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거점이었던 갈레로 이동해 요새와 구시가지를 탐방합니다.



갈레 요새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를 걸으며, 네덜란드식 거리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자갈길을 거닙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해양박물관과 갈레 국립박물관

해양박물관, 갈레 국립박물관, 등대를 방문해 요새의 역사에 대해 더 알아봅니다.

갈레 자전거 투어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갈레 자전거 투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Day 3 갈레 → 아항가마 → 코갈라 → 갈레

갈레에서 떠나는 당일 여행으로, 차 생산 과정과 남부 해안의 전통 장대 어부들을 구경합니다.



한두누고다 차 공장

버진 화이트 티 공장으로도 알려진 이곳에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유명한 차를 채엽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배우고, 차와 초콜릿 케이크를 시음하며 찻잎을 구매할 기회도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코갈라의 장대 어부

코갈라 해안을 따라 장대 위에 걸터앉은 어부들을 구경하고, 수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이 전통 기술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4 갈레 → 우다왈라웨

아침 식사 후 우다왈라웨로 이동해 체크인하고, 다음 날 사파리를 앞두고 휴식을 취합니다.

Day 5 우다왈라웨 → 하푸탈레

아침에는 우다왈라웨에서 사파리를 즐기고, 이후 고지대의 전망대와 식민지 시대 유적이 있는 하푸탈레로 이동합니다.



우다왈라웨 국립공원

1970년대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조성된 이 공원의 습지, 숲, 초원을 가로지르는 3시간 사파리로, 물새, 스리랑카 코끼리를 비롯한 다양한 포유류, 파충류, 나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AntanO · CC BY-SA 4.0



립톤 시트

우바, 사바라가무와, 중부, 동부 주를 조망할 수 있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전망대 중 하나입니다.

Kapidis (talk). The original uploader was Kapidis at English Wikipedia. · CC BY-SA 3.0

아디샴 저택

1900년대 초에 지어진 튜더 양식의 저택으로, 부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

네오고딕 양식의 교회로, 묘지에는 많은 영국인 차 농장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Day 6 하푸탈레 → 엘라 → 하푸탈레

차밭과 전망대, 식민지 시대 철도 유산이 있는 엘라를 탐방한 뒤 하푸탈레로 돌아옵니다.



리틀 아담스 피크

선명한 초록빛 차밭과 바위 지대를 지나며 리틀 아담스 피크의 전경을 감상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나인 아치 브리지

다리를 건너며 건설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Deitel55 · CC BY-SA 3.0



데모다라 기차역

독특한 루프형 선로 설계로 유명한 이 역에서 하이킹을 마무리합니다.

A.Savin · FAL

Day 7 갈오야 (7~8일차)

스리랑카에서 가장 외지고 방문객이 드문 야생 지역 중 하나인 갈오야에서 이틀간 야생동물과 자연 경관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갈오야 야생지대

공원의 풍부한 야생동물을 탐험하고, 방문객의 발길이 드문 외딴 자연과 교감해 봅니다.

갈오야 지프 사파리

전문 자연 가이드와 함께하는 정글 지프 투어로, 회색 랑구르, 사슴, 새, 소형 포유류, 코끼리, 파충류, 운이 좋다면 표범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Day 9 갈오야 → 캔디

캔디로 이동하며, 선택 사항으로 이른 아침 트레킹을 즐긴 후 저녁에는 전통 공연을 관람합니다.

몽키 마운틴 트레킹

선택 사항으로, 이른 아침 두 시간 동안 롯지 맞은편 절벽까지 오르는 트레킹을 즐길 수 있으며, 숲으로 뒤덮인 계곡의 탁 트인 전망과 함께 일출을 감상하기에 좋은 시간대입니다.



캔디 전통 공연

불춤, 칼춤, 캔디안 댄스 등 스리랑카의 다양한 전통 예술을 북소리에 맞춰 선보이는 1시간 공연입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10 캔디

캔디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유적과 식물원을 둘러보는 하루입니다.



불치사(佛齒寺)

16세기에 부처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지어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화려하게 채색된 전당과 조각된 기둥, 금빛 불상이 인상적입니다.

A.Savin · FAL



페라데니야 왕립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이 식물원에는 난초, 향신료, 약용 식물을 포함해 4,000종이 넘는 식물이 있으며, 포탄나무와 현수교도 볼거리입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11 캔디 → 누와라엘리야 → 캔디

차 산지 한가운데 영국인들이 세운 고산 도시, 누와라엘리야로 떠나는 당일 여행입니다.



누와라엘리야 시내

조지안 양식부터 퀸 앤 양식까지 다양한 주택이 있는 영국 시골 마을의 복제판 같은 도시로, 성공회 교회, 골프장, 잘 가꾸어진 공원들이 있으며, 서늘하고 상쾌한 공기를 유지할 만큼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12 캔디 → 마탈레 → 담불라

스리랑카의 향신료 수도인 마탈레를 거쳐 고대 석굴 사원이 있는 담불라로 이동합니다.

유포리아 향신료 허브 정원

마탈레 인근에서 자연 그대로의 열대 기후 속에서 자라는 허브와 향신료 농장을 둘러보는 교육적인 향신료 투어입니다.



담불라 석굴 사원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사원 단지에는 고타마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고대 벽화와 신성한 왕의 동굴, 대왕의 동굴을 포함한 5개의 주요 동굴에 수백 개의 불상과 신상이 모셔져 있으며, 바깥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13 담불라 → 시기리야 → 담불라

시기리야 바위 요새를 오른 뒤, 오후에는 인근 마을 생활을 체험합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5세기 카샤파 왕이 세운 바위 요새를 사자 발 모양의 입구를 통해 오르며, 유명한 벽화와 계단식 정원, 여전히 작동하는 저수조, 궁전 유적을 둘러봅니다.

Wrobell · CC BY-SA 3.0

마을 체험

인근 마을을 방문해 잔잔한 호수를 가로지르는 카타마란 사파리를 즐기고, 논길을 걸으며, 연잎에 담긴 가정식 점심을 맛봅니다.

Day 14 담불라 → 트린코말리

고대 사원, 포르투갈·네덜란드 시대의 요새, 해변, 불교 유적지를 거쳐 트린코말리로 이동하며, 고래 관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코네스와람 사원

인도의 시인 성자들이 칭송한 고대 사원으로, 역사를 담은 벽화와 기원전 15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굴 성소,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서 기도를 올렸다는 라바나 왕의 거대한 석상이 있습니다.

Shamli071 · CC BY-SA 3.0



트린코말리 요새

1624년 포르투갈인들이 처음 건설했으며, 이후 파괴된 코네스와람 사원의 돌을 이용해 네덜란드인들이 재건해 프레더릭 요새로 이름 붙였습니다.

Kondephy · CC BY-SA 4.0



닐라벨리 해변

황금빛 모래와 야자수, 맑은 바닷물로 유명한 스리랑카 최고의 해변 중 하나로, 10세기 타밀어 비문에는 이곳이 코네스와람 사원에 하사된 토지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Anton 17 · CC BY-SA 4.0



티리야야 와타다게

고대 타밀 불교의 중심지였던 마을로, 부처님이 두 상인에게 머리카락 사리를 전했다고 전해지는 지점을 표시하는 기리하두 세야 스투파와 바니야르 족장의 요새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고래 관찰

숙련된 자연 가이드와 함께 남부 해안에서 대왕고래, 향유고래, 긴수염고래를 볼 수 있는 기회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Ji-Elle · CC BY-SA 3.0

Day 15 트린코말리

산호와 조류를 보러 피전 아일랜드로 떠나는 당일 여행입니다.



피전 아일랜드 국립공원

산호초로 둘러싸인 크고 작은 두 개의 비둘기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번식하는 바위비둘기와 다양한 산호 및 해양 생물의 서식지입니다.

AntanO · CC BY-SA 4.0

Day 16 트린코말리 (16~18일차)

트린코말리 해변에서 3일간 여유롭게 지내며, 일몰 감상과 거북이 관찰, 수상 스포츠를 즐길 시간을 보냅니다.



트린코말리 해변

모래사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바다 위로 지는 노을을 감상하며, 둥지를 트는 거북이를 찾아봅니다.

Kondephy · CC BY-SA 4.0



수상 스포츠

해변을 따라 제트스키, 윈드서핑을 비롯한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겨보세요.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19 트린코말리 → 네곰보

남쪽으로 이동해 네곰보로 향하며, 활기찬 어항의 모습을 구경합니다.



네곰보 어촌 마을

현지에서는 렐라마라고 불리는 이곳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천 수산시장 중 하나로, 어선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고 도매상, 소매상, 손님들이 활기차고 생생한 분위기 속에서 거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20 네곰보 → BIA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하고 공항으로 이동해 귀국 항공편에 탑승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